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12

정윤돈 목사님

서론 : Key

각 과에 다 핵심이 있다. 2과의 Key가 무엇인가?

(1) 두 번째 만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지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옥 안 가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원죄다.

(2)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 문제 해결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방법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달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사실의 방법이 '불행'이다.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시간표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어렵지 않다. 이번에 캠프 때도 그랬지 않나. 왕따 당하는 큰 고민을 가진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아이를 만나고 싶다 했더니 우리 램네투와 연결된 것이다. 그 가정에서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집사님이 지교회에서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고 본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캠프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계속 보다가 영접하고 나니까 바로 떠나간다. 이런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된다. 그게 개인화다. 일본에 신학교 강의를 갔더니 키도 크고 잘 생긴 친구가 신학교에 와 있었다. 그래서 왜 신학교를 왔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 말 안 듣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2주 만에 깨어났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한다. 여러분은 2주 만에 깨어나서 깨닫지 말고 평탄하게 깨닫으시기 바란다. (웃음) 그러나 그 사고 문제, 질병이 불행한 것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에게 응답이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체험함으로써 복음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도가 어려운가, 쉬운가? 이 부분을 체험하면 알아서 뿌리내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쉽다는 것이다. 이것 모르면 어렵다. 수학도 잘 푸는 사람은 쉽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다. 답을 알고 열두 가지 문제를 알면 쉽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 누구든지 답을 줄 수 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전에,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인간이 천국에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류목사님을 만나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두드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말이다.

(웃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나 운명, 시주팔자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문제는 똑같이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불행하게 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란다. 적당히 주일예배 나와주는 정도의 분들은 문제 속에 심각하게 있다가 복음 들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축복을 못 누린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라.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라.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고 일곱 램네투들이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다.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 살릴 때, 생명 살릴 때 오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와 시대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1.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엡2:1).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2)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① 본래 인간 -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②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질도 행복도 자유도 평화도 풍요도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움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다(가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

③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고전 2:12). 우울증 환자는 아무 것도 하기 싫다. 활동 의지력이 척추관절 질환자의 절반 밖에 안 된다.

(3)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살후 2:10~11). 엘리트도 못 알아듣는다. 이것은 성령의 지혜니까 아이큐 1천, 2천 되어도 못 깨닫는다.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영적인 아이큐가 무한대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고후4:4~5). 우리가 다락방할 때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무식한 말 속에서도 답을 얻게 된다. 무식한 말 속에 결론을 내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결론을 내게 된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뭔가 의지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도 비선실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에게 복음 못 전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2)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3)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대상을 찾아 종교생활을 한다(마12:43~45). 그래서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다른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종교다.

(4)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었다(골2:8~9). 어떤 지식,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된다. 공부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진다. 나도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더 모르는 게 발견된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결론내린 것이다. '아이고, 성경만 읽어야겠다.' 지식사회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만드는 것도, 그 사회의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겠는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공산주의가 옳은 것이라고 했겠는가? 사람의 지식은 그렇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다.

(5)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 철학, 선행을 찾아갈 뿐이다.

3.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1)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옥이 된다. 이 상태가 뒤집어져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2)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요3:3~5).

(3)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4)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5)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나?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믿어지고 이만희 믿어야 할 것 같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되지 않나. 오직 예수의 축복에서 흔들리지 마라.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 자살 못한다. 잘 알려줘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을 막아야 하니까. 모든 자살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살 방식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복창하게 해라. (웃음) 그렇게 해 놓고 지옥 안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만 두고도 더 바랄 게 없는 것이다.

(6)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마25:41).

(7)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4.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1)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속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들어가야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죽은 사람의 노력은 썩는 냄새밖에 안 난다. 생명이 없는 인간은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법이다.

(2)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된다.

(3)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있는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5.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1)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다.

(2)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다.

(3)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행4:12).

(4)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엡2:8~9).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실한 포럼을 해 보라. 그 사람의 문제, 한계, 불행에 대해서 진실하게 포럼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다락방 문을 엄청나게 여는 마스터키가 된다. 이것을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대중 살면서 살만 하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포럼을 해 주고 기도도 알려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고 사실적으로 답을 줘야 한다. 막연한 메시지 만으로는 개인화가 되지 않는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사실적으로 변화시켜라. 마음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 눈빛도 언어도 걷는 방식까지도 바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결론

(1)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뭔가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가위눌림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자살도 있다. 종교생활도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2) 그 후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

(3) 3오늘을 통해서, 계속 준비하고 지속할 방법이 3오늘을 해 보는 것이다.

(4) 그 key가 8미션에서 말하는 말씀의 흐름이다.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삶 속에서 응답되는 체험이 있으면 절대 지교회, 절대 제자까지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5)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21가지 삶이 필요하고,

(6) 9가지 포인트가 필요한 것이다. 캠프 한 번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지속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삶이 되어야 한다.

(7)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지금 사회 문제를 보라.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되어진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개혁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절대 목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